



2012년 중국 3D TV 시장 발전 전망 분석

Key Message

중국 산업연구기관 CIRN에 따르면, 2012년 3D 시험방송 개시와 런던올림픽 3D 중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TCL, Panasonic, Sony 등 중국 국내외 기업들의 3D 시장 공략이 본격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3D TV 시장 규모는 2011년 570만 대에서 2012년 1,796만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Briefing

3D 시험방송 및 런던올림픽 3D 중계로 2012년 중국 3D 시장 급성장 전망

- ▶ 중국 산업연구기관 CIRN(www.chinairn.com)에 따르면, 2012년 1월 국가소유의 중앙방송국 CCTV를 비롯한 5개 방송국¹⁾이 3D 시험방송을 시작한 이래 중국 국내외 3D 관련 업체들이 앞 다투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음
 - 중국 최대 가전업체 TCL은 2012년 2월 CCTV의 3D 채널 파트너로 선정, 3D 영상 구현과 코덱, 3D 수신기의 안정화 등의 기술 공유에 나서
 - Panasonic은 2012년 런던올림픽 3D 중계권을 확보, 개막식과 폐막식을 포함해 육상, 체조 등 300시간 분량의 스포츠 경기를 중국 전역에 3D로 생중계할 예정인 CCTV²⁾에 자사의 스포츠 촬영용 방송설비를 전면 공급하기로 결정함
 - Sony는 중국에 퍼스널 3D 뷰어인 'HMZ-T13'³⁾을 출시하며 차세대 3D 디스플레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2011년 Sony에 지분 전량을 매각한 Sony Ericsson은 CCTV의 3D 채널 개시를 위한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됨

1) CCTV를 중심으로 Beijing TV, Shanghai TV, Tianjin TV, Shenzhen TV, Jiangau TV 등 6개 방송사가 연합라인을 구축함

2) CCTV는 2년 전부터 3D 프로그램의 제작과 송출에 관한 연구에 착수해,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당시 3D 송출 실험을 실시하는 등 2012년 런던올림픽의 3D 중계를 준비

3) 2개의 OLED 화면을 통해 어디서든지 3D 영상을 5.1채널 음향과 150인치의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기로, 헤드셋처럼 착용해 사용하는 제품



- ▶ 현지 및 글로벌 기업의 중국 3D 시장 집중 공략 배경은 2012년부터 시작된 정부주도의 3D 시험방송과 런던올림픽 3D 중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중국 내 막대한 3D 시장 수요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임
- ▶ 중국 비디오산업협회(China Video Industry Association, CVIA)의 부회장 린윈팡(林元芳)에 따르면, 중국의 3D TV 시장 규모는 2011년 570만대에서 2012년 1,796만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 보급률은 2011년 14.4%에서 2012년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3D TV 디스플레이 시장뿐만 아니라 3D 콘텐츠 제작 및 방송설비 시장도 성장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관측됨
- ▶ 특히, 중국 3D TV 시장에서는 중국 현지 벤더들이 방대한 전국 유통망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경쟁력을 내세워 시장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음
 - 2012년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중국의 230개 도시 약 1,910개 상점을 대상으로 3D TV 판매량 기준 5대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5대 브랜드 모두 중국 현지 브랜드로 Skyworth, Hisense, Changhong, Konka, TCL 순으로 집계됨⁴⁾
 - Changhong의 CEO에 따르면, 현재 Changhong의 3D TV 매출액 비중은 전체 TV 매출의 40%를 넘어섰으며, 춘절 기간(2012년 1월 22일~28일) 중 Hisense의 3D TV 출하량 비중도 전체 TV 출하량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

Source

1. CIRN, '2012年3D市場發展局勢研究分析', 2012.6.11
<http://www.chinairm.com/news/20120611/113079.html>

4) 중국 3D TV 시장에서 TCL, Hisense, Changhong, Konka 등 중국 로컬 브랜드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6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